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

Emotional Behavior in Preschoolers' Peer Conflict: The Role of Peer Conflict Situation and Age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 지 현
교 수 이 순 형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im, Jihyun

Professor : Yi, Soon Hyung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eer conflict situations and age differences in preschoolers' emotional behavior of happiness, sadness, and anger. Participants were twenty-two 3-year-olds and twenty 5-year-olds, and each pair of the same age interacted in two standardized conflict situations: object possession conflict and behavioural/interpersonal conflict. Participants' emotional behaviors of happiness, sadness, and anger were observationally coded through facial expression, verbal intonation, gesture, and physical contact. Preschoolers expressed more sadness and anger emotional behavior in object possession conflict than in behavioural/interpersonal conflict. In object possession conflict, 3-year-olds expressed more anger emotional behavior than 5-year-olds did. In behavioural/interpersonal conflict, 5-year-olds expressed more happiness emotional behavior than 3-year-olds did.

주제어(Key Words): 정서표현 행동(emotional behavior), 또래 갈등 상황(peer conflict situation), 연령(age)

Corresponding Author: Jihyun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llim-9-dong, San 56-1, Kwanak-gu, Seoul, Korea, 151-748 Tel: 82-2-880-8754 Fax: 82-2-871-2506 E-mail: pur96@snu.ac.kr

I. 서론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보다 또래 경험이 줄어들어 불구하고 맞벌이 가족 증가와 보육 활성화에 따라 또래 경험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지는 현 실정은 또래 갈등의 맥락에서 유아의 발달을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 유아는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기 위해(Dunn & Brown, 1991), 그리고 상대 유아의 목표와 양립 불가능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하나의 도구로 표현하므로(Campos, Mumme, Kermonian, & Campos, 1994), 또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표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정서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변화 및 종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하여 정서의 내적 심리 과정보다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Campos et al., 1994). 이처럼 정서표현 행동을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자기 보호적이고 적응적인 기능(Dunn, Bretherton, & Munn, 1987)으로 바라볼 때,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은 정서표현 행동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또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학령기 이전 시기 동안 발달적으로 변화한다. 즉, 학령기 이전 시기에는 사물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대물 갈등이 보편적이지만(Killen & Sueyoshi, 1995; Laursen & Hartup, 1989; O'Brien, Roy, Jacobs, Macaluso, & Peyton, 1999; Rende & Killen, 1992; Ross, 1996; Ross & Conant, 1992; Shantz, 1987), 연령이 증가하면서 놀이 방법이나 역할 배정에서 상대방과의 의견 불일치와 규칙의 위반 등을 둘러싼 대인 갈등이 더 보편화된다(Putallaz, Hellstern, Sheppard, Grimes, & Glodis, 1995; Ross & Conant, 1992; Rourke, Wozniak, & Cassidy, 1999; Shantz, 1987). 구체적으로, 3세 유아의 또래 갈등의 74.6%는 장난감의 소유를 둘러싸고 일어났고, 18.8%는 놀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시도였다(O'Brien et al., 1999). 이에 반해, 5세 및 6세 유아의 또래 갈등 원인은 놀이의 구조화가 47%, 자원의 분배가 31%, 심리적 상해가 14%, 신체적 상해가 8%를 차지하였다(Killen & Sueyoshi, 1995). 한국의 4세 및 5세 유아의 경우, 갈등의 원인이 생각, 사실, 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22.92%), 사물의 소유(19.44%), 제한 및 도움 거부(16.97%), 규칙 위반(12.50%), 놀이 활동 결정(9.03%) 순으로 나타났다(엄정례, 1998). 이를 통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갈등의 주된 원인이 사물이나 영역의 소유, 공격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라기보다 의견 불일치, 규칙 위반, 놀이 활동 결정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래 갈등 원인의 발달적 변화에서 더 나아가 유아가 속해 있는 맥락과 지향하는 목표가 또래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는 유아의 전략(Chung & Asher, 1996)과 정서표현(Campos et al., 1994)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선행연구도 또래 갈등 상황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만 대물 갈등은 신체적 저항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Ross & Conant, 1992) 반면, 의견 불일치로 인한 대인 갈등의 경우 정서 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이유 설명하기, 고집하기, 제삼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엄정례, 1998). 그러나 또래 갈등 유형에 따라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 강도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O'Brien et al., 1999)도 있어 또래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 행동을 갈등 상황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또래 갈등 원인의 발달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행동 자체에도 유아의 연령차가 보고된다. 갈등 이후에 상호 평등한 결과로 종료되는 현상이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5세가 되면 화제와 상관없이 갈등이 상호 동의로 종료된다(Kinoshita, Satio, & Matsunaga, 1993). 또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아는 강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Eisenberg & Garvey, 1981; O'Brien et al., 1999). 즉,

걸음마기 유아는 장난감을 빼앗기는 데 저항하거나 사물을 재획득하는 데 신체적인 힘을 사용(김정연·이순형, 1996)하는 반면, 학령기 이전 유아는 보다 치밀한 신체적 전략과 이유대기나 지시하는 언어를 함께 사용한다(Ross & Conant, 1992). 이를 통해,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의 차이는 또래 갈등 상황의 유형과 연령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남 정서는 학령기 이전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정서표현 형태이다(Miller & Olson, 2000). 그러나, 화남 정서만은쟁 관련 정서가 아니며(Arsenio & Lover, 1997), 화남 정서가 곧 공격성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Murphy & Eisenberg, 1996). 학령기 이전 유아의 가장 빈번한 전략이 묘사하기, 지시하기, 보여주거나 가리키기, 질문하기인 반면, 사물 움켜쥐거나 때리기는 단지 5%에 해당되는 점(Krasnor & Rubin, 1983)이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Arsenio & Lover, 1997)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가 갈등 관련 행동보다 공격적 행동과 더 강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의 기쁨 표현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없지만, 공격 시 기쁨을 표현하는 유아는 갈등에 연루되어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Arsenio & Lover, 1997).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표현 행동을 일반적 정서표현 행동과 공격성 관련 정서표현 행동, 즉 신체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표현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숨기거나 왜곡시키기보다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Arsenio & Killen, 1996), 정서표현에 있어서 개인차가 명백하게 나타나는(Cole, Michel, & Teti, 1994; Denham & Couchoud, 1990) 만 3세 및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을 다양한 정서와 구체적인 정서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쁨, 슬픔, 화남에 대한 정서표

현 행동은 갈등 상황(대물 갈등, 대인 갈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기쁨, 슬픔, 화남에 대한 정서표현 행동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24명과 만 5세 유아 24명 중 단시간에 놀이가 종료된 만 5세 유아 2명과 월령이 만 3.5세를 약간 벗어난 유아 4명을 제외한 만 3세 유아 22명과 만 5세 유아 2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관찰은 어린이집의 같은 반에 속한 동성의 또래를 2명씩 짝 지워 총 21쌍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는 일반적으로 동성 또래와의 놀이를 선호하고(Bianchis & Bakeman, 1978), 또래 갈등도 이성쌍보다 동성쌍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Rende & Killen, 1992; Vespo, Pederson, & Hay, 1995) 동성의 또래와 쌍을 지었다. 집단 크기를 2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4.5세 유아가 일으키는 갈등을 자연 관찰한 엄정래(1998)의 연구에서 집단의 크기가 2명일 때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Laursen, Hartup, & Koplas, 1996; Rourke et al., 1999)에 따르면, 또래 갈등의 발생, 상호작용, 결과가 또래의 친숙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같은 어린이집의 같은 반에 속한 원아 2명씩 짝 지웠다. 특히 8월에 본관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두 원아간의 친숙도를 통제하기 위해 봄학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유아만을 관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월령은 만 3세 유아의 경우 평균 44개월(37개월~47개월), 만 5세 유아는 평균 65개월(60개월~70개월)이었다. 형제순위에서는 외동이를

포함한 첫째가 34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21명(50.0%),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21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갈등 에피소드

정서표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한 쌍의 유아가 또래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중에서 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갈등 에피소드의 기준은 첫째, A유아가 B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나 B유아가 이 영향력에 저항하고, 이에 대해 A유아가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엄정례, 1998; 이강이·이순형, 1999; O'Brien et al., 1999; Putallaz et al., 1995; Rourke et al., 1999; Shantz, 1987), 즉 두 번 이상의 반대로 시작된 상호작용을 갈등 에피소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반대에 대해 놀이 상대아가 상호 반대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이강이·이순형, 1999). 둘째, 갈등 에피소드 내에서 유아가 보이는 행동이나 언급에 대해 놀이 상대아가 더 이상 반대를 보이지 않는 상태가 10초 이상 경과한 경우, 놀이 상대아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갈등이 명백하게 해결된 이후에는 갈등 에피소드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이강이·이순형, 1999; Putallaz et al., 1995; Rourke et al., 1999).

2) 정서표현 행동의 범주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행동을 기쁨, 슬픔, 화남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 억양, 비언어적 행동의 하위 범주로 구분한 Hubbard(2001)의 모형을 예비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였다.

Hubbard(2001)는 억양 범주를 언어적 요소로 간주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유아가 표현하는 음성적인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억양을 비언어적인 정서표현 행동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Arsenio & Lover, 1997; Denham, 1986; Hubbard, 2001; Miller & Olson, 2000; Walter & LaFreniere, 2000)에서 유아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억양을 얼굴 표정 및 몸짓과 함께 비언어적 정서 표현으로 범주화한 것에 근거한다.

또한, Hubbard(2001)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몸짓과 상대 유아와 접촉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신체 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하나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다른 정서표현 행동 범주와 구별되고(Howe, 1991), 특히 화남 정서의 경우 신체 접촉은 공격성과 연결된다. 공격적인 갈등과 비공격적인 갈등이 갈등 발생(Arsenio & Lover, 1997)과 갈등 이후에 이루어지는 또래간의 근접성(Laursen & Hartup, 1989)에 영향을 미치므로, 몸짓과 신체 접촉 범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행동의 범주를 기쁨, 슬픔, 화남에 대한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으로 구분하였다. 정서표현 행동 분석 범주의 구체적인 예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Hubbard(2001)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정서표현 행동이란 또래 갈등 상황 동안 한 쌍의 유아가 주고받는 행동 차례를 기준으로, 쌍을 이루는 두 유아가 자신의 행동 차례에서 표출한 정서표현 행동을 각 정서별로 표출되는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으로 범주화한 빈도의 합이다. 특히 유아는 한 차례의 행동 동안 여러 범주의 정서표현 행동을 동시에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정서표현 행동 각각을 코딩한다. 따라서, 각 또래 갈등 상황의 갈등 에피소드들을 구성하는 모든 행동 차례에서 쌍을 이루는 두 유아가 각각 표출한 정서표현 행동을 본 관찰 도구의 범주에 근거하여 범주화한 후 합산한 빈도가 그 유아의 정서별 정서표현 행동 점수가 되며, 각 정서 내에서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으로 나타난 정서표현 행동의 빈도를 합한 점수가 각 정서의 전체 표현행동 점수가 된다.

만 3세 유아 4명(2쌍)과 만 5세 유아 4명(2쌍)의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아동학 전공 박사 1인과 석사 1인에 의해 평정한 정서표현 행동의 신뢰도는 .90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표 1〉 정서표현 행동 범주 구분

하위 범주	개념	예		
		기쁨	슬픔	화남
얼굴 표정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행동	미소짓기, 웃기	입이나 눈을 아래로 향하기, 입술다물기	울기, 얼굴을 찡그리기, 입술깨물기, 눈동자 굴리기, 뺨부풀리기
억양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성적 강세로 표현하는 행동	음 올라가는 억양 지르기	환호성 지르기	저음의 떨어지는 억양, 청얼 소리지르기, 으르릉거리는 목소리, 투덜대기
몸짓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신의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는 행동	자 손뼉치기, 춤추기, 노래부르기, 아래 위로 점프하기, 몸을 크게 휘두르기	한숨짓기, 자리에 무너지듯 앉기, 뒤로 물러나 앉기, 어깨 늘어뜨리기, 고개 돌리기, 고개 숙이기, 머리 긁적이기, 위를 올려다보기	뺨기, 발 구르기, 물건 던지기, 엉덩이를 들었다 놓기, 몸을 격렬하게 흔들기, 자기름 치기, 어깨 들썩거리기
신체 접촉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서로의 신체를 마주치면서 표현하는 행동	안기, 뽀뽀하기, 손잡기, 만지기, 쓰다듬기	움푹이며 안기, 울푹이며 상대 유아의 옷 끌어당기기	밀기, 치기, 때리기, 찌르기, 주먹질하기, 누르기, 잡아당기기

자료와 녹화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3. 연구 절차

유아의 또래 갈등을 적절하게 유도하는 관찰 상황을 선정하고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에 관한 관찰 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 3세 유아 8명(4쌍)과 만 5세 유아 8명(4쌍)을 대상으로 2002년 7월 8일~8월 12일에 걸쳐 서울시 소재 1곳의 어린이집에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또래 갈등은 개방된 공간보다는 폐쇄된 공간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김송이·박경자, 2001; Wheeler, 1994), 놀이실 상황이 주변 영역으로 주의를 뺏기는 상황을 방지하므로(O'Brien et al., 1999), 연구자는 유아가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에서 또래 갈등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후 이들이 보이는 진술과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실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제한된 양의 자원이 제공될 때 대물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Hay & Ross, 1982; Laursen & Hartup, 1989), 한 쌍의 유아에게 하나의 장난감을 제시할 경우 대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물 갈등 유발을 위해 선행연구(Gamer & Estep, 2001; O'Brien et al., 1999)에서 사용한 자석칠판 장난감을 관찰 놀이감으로 선정하였다. 대인 갈등 상황은 유아간에 생각, 의견,

믿음, 규칙 위반, 놀이 방법, 놀이 역할 배정에 관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불일치를 유발하는 상황이어야 하므로(Rourke et al., 1999), 학령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역할놀이(소꿉놀이)를 대인 갈등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본 관찰은 2002년 8월 20일에서 8월 22일에 걸쳐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에서 실시하였다.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연구대상 동성의 유아 쌍을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동작실에 불러서 놀이감을 제공한 후 관찰하였다. 대물 갈등이나 대인 갈등 상황 중 한 상황의 놀이가 종료된 후 다른 갈등 상황 놀이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놀이를 다시 시작하도록 했으며, 갈등 상황은 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과제 상황별로 10분씩, 총 20분 동안 한 쌍의 유아가 놀이하는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비디오로 녹화된 각 쌍의 두 유아의 모든 행동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행동을 정서표현 행동의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그 횟수를 두 유아 각각의 관찰표에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쌍체 t 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이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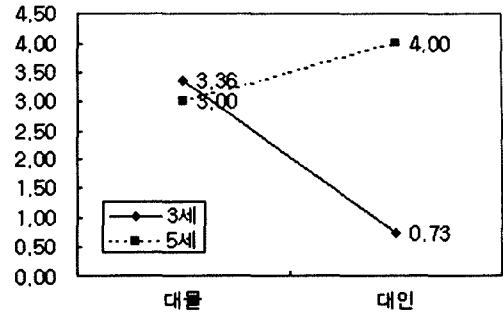
갈등 상황과 연령에 따른 두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갈등 상황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갈등 상황에 따른 주효과는 유아의 슬픔 정서표현 행동($F=6.67$, $df=1, 40$, $p<.05$)과 슬픔 정서표현 행동 중 얼굴 표정($F=11.44$, $df=1, 40$, $p<.01$)의 하위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물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슬픈 행동, 그리고 슬픈 얼굴 표정이 대인 갈등 상황에서도보다 더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유아의 화남 정서표현 행동($F=15.06$, $df=1, 40$, $p<.001$)과 화남 정서표현 행동 중 얼굴 표정($F=15.47$, $df=1, 40$, $p<.001$), 억양($F=9.34$, $df=1, 40$, $p<.01$), 몸짓($F=7.22$, $df=1, 40$, $p<.05$), 신체 접촉($F=10.65$, $df=1, 40$, $p<.01$)의 하위 영역에서도 갈등 상황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물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화남 행동, 그리고 화남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이 대인 갈등 상황에서도보다 더 자주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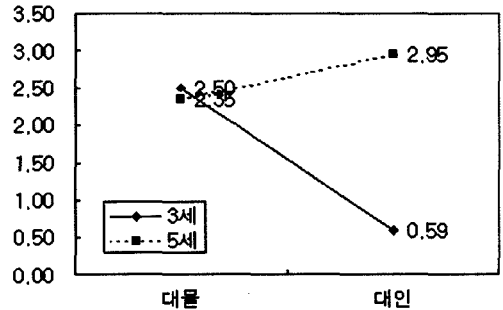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아의 화남 정서표현 행동 중 화남 몸짓($F=4.73$, $df=1, 40$, $p<.05$)과 신체 접촉($F=11.58$, $df=1, 40$, $p<.01$)의 하위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3세 유아의 화남 몸짓과 화남 신체 접촉이 5세 유아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기쁨 정서표현 행동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6.23$, $df=1, 40$, $p<.05$)가 나타났다(그림 1). 대물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기쁨 정서표현 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였다($t=-2.43$, $df=20$, $p<.05$).

유아의 기쁨 정서표현 행동의 하위 영역 중 얼굴 표정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5.75$, $df=1, 40$, $p<.05$)가 나타났다(그림 2).



<그림 1> 유아의 기쁨 정서표현 행동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유아의 기쁨 얼굴 표정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대물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5세 유아보다 3세 유아보다 기쁨 얼굴 표정을 더 많이 표출하였다($t=-2.31$, $df=20$, $p<.05$).

기쁨 억양에서도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5.22$, $df=1, 40$, $p<.05$)가 나타났지만(그림 3),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에서 유의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세 유아보다 대인 갈등 상황에서보다 대물 갈등 상황에서 기쁨 억양을 많이 표현하여, 3세 유아에게서만 갈등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유아의 슬픔 정서표현 행동 중 슬픔 얼굴 표정의 하위 영역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6.90$, $df=1, 40$, $p<.05$)가 나타났다(그림 4). 대물 갈등 상황에서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슬픔 얼굴 표정을 더 많이 표출하였지만

〈표 2〉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의 전반적 경향

범주 구분	갈등 상황	연령		
		3세 (n=22)	5세 (n=20)	평균 (N=42)
		M(SD)	M(SD)	M(SD)
기쁨	대 물	336(387)	3,00(342)	319(362)
	대 인	.73(.98)	4,00(5.94)	2,29(4.42)
	평 균	2,05(3.10)	3,50(4.81)	2,74(4.05)
얼굴 표정	대 물	250(272)	2,35(254)	2,43(261)
	대 인	.59(.85)	2,95(4.50)	1,71(3.34)
	평 균	1,55(2.21)	2,65(3.62)	2,07(3.00)
억양	대 물	.77(1.38)	.45(.94)	.52(1.19)
	대 인	.05(.21)	.90(1.86)	.45(1.35)
	평 균	.41(1.04)	.68(1.47)	.54(1.27)
몸짓	대 물	.05(.21)	.15(.49)	.10(.37)
	대 인	.05(.21)	.15(.49)	.10(.37)
	평 균	.05(.21)	.15(.48)	.10(.37)
신체 접촉	대 물	.05(.21)	.05(.22)	.05(.22)
	대 인	.05(.21)	.00(.00)	.02(.15)
	평 균	.05(.21)	.03(.16)	.04(.19)
슬픔	대 물	650(5.85)	4,25(6.27)	5,43(6.09)
	대 인	1,18(2.11)	3,40(9.34)	2,24(6.63)
	평 균	3,84(5.11)	3,83(7.87)	3,83(6.53)
얼굴 표정	대 물	355(3.50)	1,55(2.67)	2,60(3.25)
	대 인	.36(.90)	1,15(2.87)	.74(2.10)
	평 균	1,95(3.00)	1,35(2.74)	1,67(2.88)
억양	대 물	.86(1.49)	.75(1.52)	.81(1.49)
	대 인	.32(1.09)	.70(1.87)	.50(1.50)
	평 균	.59(1.32)	.73(1.68)	.65(1.49)
몸짓	대 물	2,09(2.71)	1,95(2.91)	2,02(2.77)
	대 인	.50(.86)	1,55(4.88)	1,00(3.42)
	평 균	1,30(2.14)	1,75(3.97)	1,51(3.14)
신체 접촉	대 물	.00(.00)	.00(.00)	.00(.00)
	대 인	.00(.00)	.00(.00)	.00(.00)
	평 균	.00(.00)	.00(.00)	.00(.00)
화남	대 물	25,09(20,53)	9,85(10,71)	17,84(18,12)
	대 인	8,73(16,84)	9,00(13,80)	8,86(15,28)
	평 균	16,91(20,32)	9,43(12,20)	13,35(17,26)
얼굴 표정	대 물	7,23(6,55)	3,10(4,60)	5,26(6,01)
	대 인	1,91(4,58)	2,30(6,11)	2,10(5,30)
	평 균	4,57(6,20)	2,70(5,36)	3,68(5,85)
억양	대 물	6,68(6,63)	3,85(4,42)	5,33(5,80)
	대 인	2,18(4,11)	3,90(5,86)	3,00(5,03)
	평 균	4,48(5,91)	3,88(5,12)	4,17(5,52)

<표 2> 계속

범주 구분	갈등 상황	연령		
		3세(n=22)	5세(n=20)	평균(N=42)
		M(SD)	M(SD)	M(SD)
몸 짓	대 물	7.05(5.65)	2.55(2.74)	4.90(5.00)
	대 인	3.09(5.06)	2.65(2.89)	2.88(4.13)
	평 균	5.07(5.67)	2.60(2.78)	3.89(4.67)
신 체 접 촉	대 물	4.14(3.93)	.35(.67)	2.33(3.43)
	대 인	1.55(3.80)	.15(.37)	.88(2.82)
	평 균	2.84(4.04)	.25(.54)	1.6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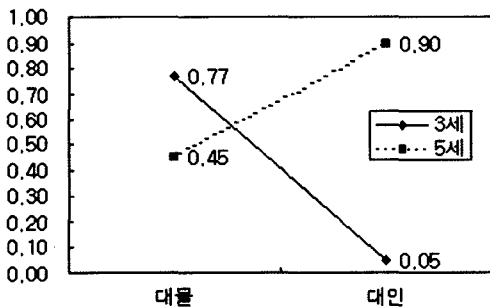
($t=2.09$, $df=39$, $p<.05$),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화남 정서표현 행동에서도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12.23$, $df=1, 40$, $p<.01$)가 나타났다(그림 5). 대물 갈등 상황에서 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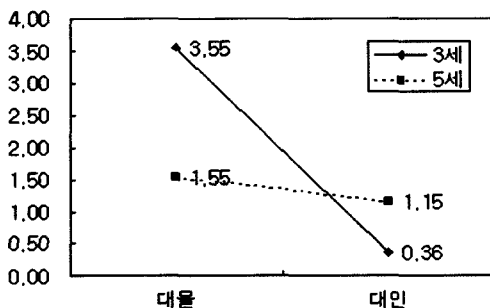
유아가 5세 유아보다 화남 정서표현 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였지만($t=3.06$, $df=32$, $p<.01$),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남 정서표현 행동 하위 영역 중 얼굴 표정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8.44$, $df=1, 40$, $p<.01$)가 나타났다(그림 6). 대물 갈등 상황에서 3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화남 얼굴 표정을 더 많이 표출하였지만($t=2.38$, $df=38$, $p<.05$),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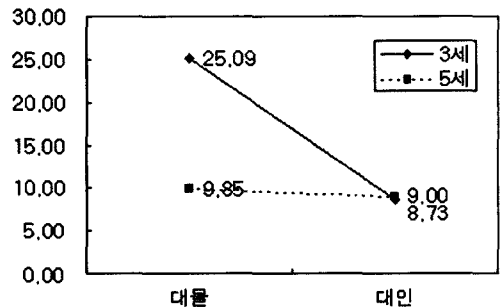
유아의 화남 억양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9.77$, $df=1, 40$, $p<.01$)가 나타났으나(그림 7),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에서 유의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세 유아가 대인 갈등 상황에서보다 대물 갈등 상황에서 화남 억양을 많이 표현하여 3세 유아에게서만 갈등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유아의 기쁨 억양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유아의 슬픈 얼굴 표정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유아의 화남 정서표현 행동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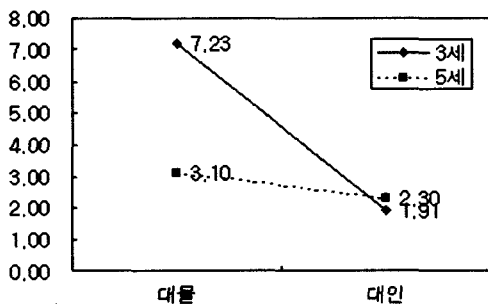
〈표 3〉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 변량 분석

범주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기쁨	피험자간	연령	44.33	1	44.33	2.27
		오차	782.91	40	19.57	
	피험자내	갈등	14.03	1	14.03	1.26
		연령×갈등	69.26	1	69.26	6.23*
		오차	444.55	40	11.11	
얼굴 표정	피험자간	연령	25.56	1	25.56	2.28
		오차	449.01	40	11.23	
	피험자내	갈등	8.98	1	8.98	1.57
		연령×갈등	32.98	1	32.98	5.75*
		오차	229.31	40	5.73	
억양	피험자간	연령	1.48	1	1.48	.87
		오차	67.91	40	1.70	
	피험자내	갈등	.40	1	.40	.29
		연령×갈등	7.26	1	7.26	5.22*
		오차	55.66	40	1.39	
몸짓	피험자간	연령	.23	1	.23	1.52
		오차	6.01	40	.15	
	피험자내	갈등	.00	1	.00	.00
		연령×갈등	.00	1	.00	.00
		오차	5.00	40	.13	
신체 접촉	피험자간	연령	.01	1	.01	.25
		오차	1.38	40	.03	
	피험자내	갈등	.01	1	.01	.36
		연령×갈등	.01	1	.01	.36
		오차	1.48	40	.04	
슬픔	피험자간	연령	.01	1	.01	.03
		오차	2024.66	40	50.62	
	피험자내	갈등	199.29	1	199.29	6.67*
		연령×갈등	104.58	1	104.58	3.50
		오차	1194.66	40	29.87	
얼굴 표정	피험자간	연령	7.66	1	7.66	.93
		오차	331.01	40	8.28	
	피험자내	갈등	67.20	1	67.20	11.44**
		연령×갈등	40.54	1	40.54	6.90*
		오차	235.04	40	5.88	
억양	피험자간	연령	.38	1	.38	.13
		오차	118.11	40	2.95	
	피험자내	갈등	1.86	1	1.86	1.18
		연령×갈등	1.29	1	1.29	.81
		오차	63.20	40	1.58	
몸짓	피험자간	연령	4.33	1	4.33	.33
		오차	523.16	40	13.08	
	피험자내	갈등	20.76	1	20.76	3.19
		연령×갈등	7.43	1	7.43	1.14
		오차	260.06	4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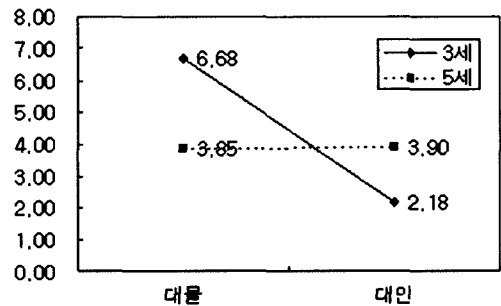
<표 3> 계속

범주 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신 체 접 촉	피험자간	연령	.00	1	.00	
		오차	.00	40	.00	
	피험자내	연령×갈등	.00	1	.00	
		오차	.00	40	.00	
	화 남	피험자간	연령	1173.58	1	1173.58
			오차	16480.91	40	412.02
피험자내		연령×갈등	1552.10	1	1552.10	
		오차	1260.67	1	1260.67	
		오차	4123.82	40	103.10	
						2.89
얼 굴 표 정	피험자간	연령	73.13	1	73.13	
		오차	1946.70	40	48.67	
	피험자내	연령×갈등	196.07	1	196.07	
		오차	106.93	1	106.93	
		오차	506.97	40	12.68	
						15.47***
억 앙	피험자간	연령	6.50	1	6.50	
		오차	1856.17	40	46.40	
	피험자내	연령×갈등	103.73	1	103.73	
		오차	108.44	1	108.44	
		오차	444.23	40	11.11	
						9.34**
몸 짓	피험자간	연령	127.64	1	127.64	
		오차	1078.90	40	26.97	
	피험자내	연령×갈등	77.83	1	77.83	
		오차	86.11	1	86.11	
		오차	431.38	40	10.78	
						7.22*
신 체 접 촉	피험자간	연령	140.65	1	140.65	
		오차	485.87	40	12.15	
	피험자내	연령×갈등	40.80	1	40.80	
		오차	29.94	1	29.94	
		오차	153.26	40	3.83	
						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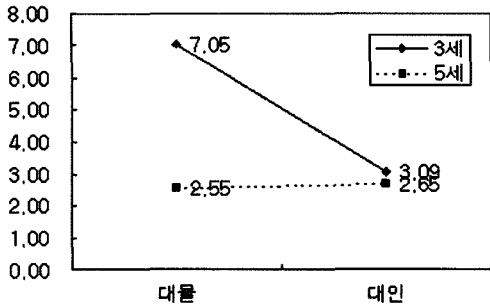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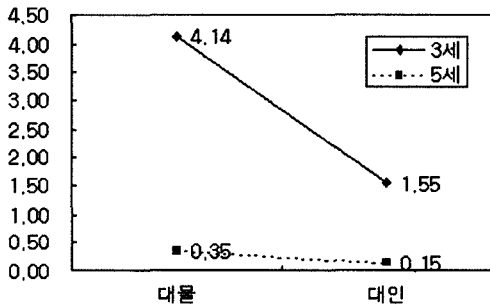
<그림 6> 유아의 화남 얼굴 표정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7> 유아의 화남 억양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8> 유아의 화남 몸짓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9> 유아의 화남 신체 접촉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화남 몸짓에서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7.99, df=1, 40, p<.01$)가 나타났다(그림 8). 대물 갈등 상황에서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화남 몸짓을 더 많이 표출하였지만($t=3.33, df=31, p<.01$),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화남 신체 접촉에서도 갈등 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7.82, df=1, 40, p<.01$)가 나타났다(그림 9). 대물 갈등 상황에서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화남 몸짓을 더 많이 표출하였지만($t=4.45, df=22, p<.001$),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유아의 경험하는 또래 갈등

등 원인의 발달적 변화로 파생되는 또래 갈등 유형과 연령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표출되는 정서표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못했음에 주목하여, 대물 갈등 상황 및 대인 갈등 상황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3세 및 5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에서 연령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갈등 상황을 인위적으로 선정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22명과 만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2명의 동성 또래 쌍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상호작용을 전사한 후 쌍을 이루는 각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을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동성 또래와의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에서 3세 및 5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은 갈등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은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슬픔 정서표현 행동과 얼굴 표정의 하위 영역, 그리고 화남 정서표현 행동과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의 하위 영역은 대인 갈등보다 대물 갈등 상황에서 더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사물 소유에 대한 갈등은 신체적 저항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Ross & Conant, 1992) 반면,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정서 강도가 높지 않으며 이유 설명하기나 토론을 통해 주로 해결된다는 선행연구(엄정례, 1998)를 통해 유아의 대인 갈등 상황보다 대물 갈등 상황에서 슬픔 및 화남 정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둘째, 화남 정서표현 행동 중 몸짓과 신체 접촉의 하위 영역에서 연령차가 나타나,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화남 몸짓과 신체 접촉을 더 빈번하게 표출하였다. 그러나 갈등 상황별로 연령차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본 결과, 대물 갈등 상황에서 화남 얼굴 표정, 몸짓, 신체 접촉을 포함한 화남 정서표현 행동을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더 빈번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물 소유에 대한 갈등이 비록 신체적 저항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지만(Ross &

Conant, 1992),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표현이 줄어들고(Cole et al., 1994; O'Brien et al., 1999; Ross & Conant, 1992), 언어적 협상이나 이유 설명하기 방법을 많이 사용함(Ramsey, 1986; Ross & Conant, 1992)을 시사한다. 반면에,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기쁜 얼굴 표정을 포함한 기쁨 정서표현 행동을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더 빈번하게 표출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3세 유아에 비해 또래의 행동 방해하거나 또래의 의견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유도하는 목적의 행동을 보다 많이 시도하는 5세 유아가 자기주장과 타협, 제안하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는 류칠선(1994)의 연구를 통해, 대인 갈등 상황에서 5세 유아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거나 놀이 상대 유아를 설득하기 위해 미소짓기와 같은 기쁨 정서표현 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표출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4, 5세 남아의 빈정대는 조롱과 또래의 화남 정서표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는 Miller와 Olson(2000)의 연구 결과는 대인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미소를 짓는 행동을 하는 경우 놀이 상대아로부터 보다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여, 갈등 에피소드 내에서 5세 유아의 기쁨 정서표현 행동이 유의하게 많이 표출된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또래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이 표출한 정서표현 행동들 간의 인과성 및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유아가 처한 갈등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 행동에서의 발달적 변화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정서별로 살펴본 유아의 정서표현 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또래 갈등 상황에서 화남 정서 이외의 정서표현도 나타남(Arsenio & Lover, 1997; Murphy & Eisenberg, 1996)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는 기쁨 및 슬픔 정서표현 행동보다 화남 정서표현 행동을 가장 많이 표현하였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유아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서가 화남 정서임과 동시에 갈등 상황 동안에는 화남 정서가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정서표현의 형태임

(Miller & Olson, 2000)을 보여준다. 또한 화남 얼굴 표정과 억양이 아닌 화남 몸짓과 신체 접촉에서 연령차를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상호작용과 비공격적 상호작용이 갈등 발생율(Arsenio & Lover, 1997)과 갈등 이후의 또래간 근접성(Laursen & Hartup, 1989)뿐만 아니라 갈등 과정의 상호작용 자체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격적 상호작용과 비공격적 상호작용이 갈등 과정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화남 정서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그 중 화남 얼굴 표정과 억양이 아닌 화남 몸짓과 신체접촉에서 연령차가 발견되어 또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상호작용과 비공격적 상호작용의 상이한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학령기 이전 시기에 또래 갈등 상황에서 만 3세아는 대물 갈등 상황에서 화남 정서표현 행동을, 만 5세아는 대인 갈등 상황에서 기쁨 정서표현 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표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물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 연령이 어린 만 3세 유아는 직접적으로 화남 정서를 표출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강도 높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줄어들고, 의견의 불일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또래 갈등 상황에서는 연령이 높은 만 5세 유아가 또래를 설득시키기 위해 미소를 짓는 등의 긍정적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상대 유아에게 조롱으로 여겨져 놀이 상대 유아로부터 저항을 유발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이전 시기에 발달적으로 변화하는 또래 갈등 상황의 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실험실 상황에서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과정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또래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수의 관찰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또래 갈등 상황에서 나

타나는 유아의 정서표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3세 및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광범위한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기에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관찰 자료를 축적하고 다양한 연령 집단을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또래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하나의 갈등 상황만을 다루거나 갈등 원인과 상관없이 수행된 데 반해, 본 연구는 학령기 이전 시기에 분명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 갈등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대물 및 대인 갈등 상황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정서표현을 연구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의 정서표현 주제를 정서의 기능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또래 갈등 상황에서 표현되는 유아의 정서표현을 접근할 수 있었다. 셋째, 정서표현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얼굴 표정, 억양, 몸짓, 신체 접촉과 같은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데 비해 본 연구는 각 하위 영역별로 갈등 상황 및 연령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하여, 공격성 유무에 따른 정서표현의 양상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보다 또래 경험이 줄어들고 맞벌이 가족 증가와 보육 활성화에 따라 또래 경험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빨라지는 실정에서, 보육 시설과 가정에서 실제로 또래 갈등을 지도해야 할 부모와 보육 교사에게 중요한 지도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송이, 박경자(2001). 또래 지위 및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빈도, 지속 시간과 쟁점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1-17.
- 김정연, 이순형(1996). 대상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57-74.
- 류철선(1994).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 목적과 전략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2), 141-152.
- 엄정례(1998). 유아의 또래간 갈등상황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강이, 이순형(1999). 대물다툼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0(1), 79-98.
- Arsenio, W. F., & Killen, M. (1996). Conflict-related emotions during peer disput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1), 43-57.
- _____ & Lover, A. (1997). Emotions, conflicts, and aggression during preschooler's freepla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31-542.
- Bianchis, B., & Bakeman, R. (1978). Sex-typed affiliation preferences observed in preschoolers: Traditional and open schoo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49, 910-912.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Campos, J. J., Mumme, D. L., Kermoian, R., &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 284-303.
- Chung, T. Y.,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25-147.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pp. 73-100.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emotion o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Study Journal, 20*, 171-192.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s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Dunn, J., & Brown, J. R. (1991). Relationships, talk about feelings, and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In J. Garber & K.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pp. 89-10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29-48.
- Hay, D. F., & Ross, H. S. (1982). The social nature of ear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Howe, N. (1991). Sibling-directed internal state language, perspective-taking, and affect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1503-1512.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5), 1426-1438.
- Killen, M., & Sueyoshi, L. (1995). Conflict resolution in Japanese social interac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317-334.
- Kinoshita, Y., Satio, K., & Matsunaga, A. (1993). Developmental changes in antecedents and outcomes of peer conflict among preschool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35*, 57-69.
- Krasnor, N.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 solving: Attempts and outcomes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45-1558.
- Laursen, B., & Hartup, W. W. (1989). The dynamics of preschool children's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35*(3), 281-297.
- _____, & Koplas, A. L. (1996). Towards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1), 76-102.
- Miller, A. L., & Olson, S. L. (2000). Emotional expressiveness during peer conflicts: A predictor of social maladjustment among high-risk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4), 339-352.
- Murphy, B. C.,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42*(1), 103-124.
- O'Brien, M., Roy, C., Jacobs, A., Macaluso, M., & Peyton, V. (1999). Conflict in the dyadic play of 3-year-old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289-313.
- Putallaz, M., Hellstern, L., Sheppard, B. H., Grimes, C. L., & Glodis, K. A. (1995). Conflict, social competence, and gender: Maternal and peer context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4), 433-447.
- Ramsey, R. (1986). Possession disputes in preschool classrooms. *Child Study Journal, 16*, 173-181.
- Rende, R. D., & Killen, M. (1992). Social interactional antecedents of conflict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551-563.
- Ross, H. S. (1996). Negotiating principles of entitlement in sibling property disp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0-101.
- _____, & Conant, C. L. (1992). The social structure of early conflict: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alliances.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53-18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rke, M. T., Wozniak, R. H., & Cassidy, K. W. (1999). The social sensitivity of preschoolers in peer conflicts: Do children act differently with different pe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2), 209-227.
- Shantz, C. U. (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Vespo, J. E., Pederson, J., & Hay, D. F. (1995). Young children's conflicts with peers and siblings: Gender effects. *Child Study Journal*, 25(3), 189-212.
- Walter, J. L., & LaFreniere, P. J. (2000). A naturalistic study of affective expression, social competences, and sociometric statu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109-122.
- Wheeler, E. J. (1994). Peer conflicts in the classroom: Drawing implications from research. *Childhood Education*, 70(5), 296-299.

(2003년 10월 30일 접수, 2004년 2월 6일 채택)